

12. 알밤 삼 형제

이름: ()학년 ()반 ()번

날짜: 년 월 일 ~ 월 일

【본문 학습】

문장	一 ¹ 服 ² 生 ⁵ 三 ³ 子 ⁴ 하니 일복생삼자	一 하나 服 배 生 나다 三 셋 子 아들
풀이	• 生: 살다, <u>낳다</u> • 子: 아들, 자식 ▶ 한 배에서 세 자식이 생겨나니	

문장	中男兩面平이라. 중남양면평	中 가운데 男 남자 兩 둘 面 얼굴 平 평평하다
풀이	• 面: 낮, <u>겉면</u> • 男: 남자, 아들, <u>자식</u> • 平: 평평하다, <u>납작하다</u> ▶	

문장	子隨先後落하니 자수선후락	子 아들(자식) 隨 따르다 先 먼저 後 뒤 落 떨어지다
풀이	• 先後: 앞뒤, 먼저와 나중 ▶	

문장	難 弟 亦 難 兄 이라. 난 제 역 난 형	難 어렵다 弟 아우 亦 또 難 어렵다 兄 형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亦: 또한, 역시 <p>▶</p>	

※ ‘형제’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형제애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도록 한다.

※ 한시를 읽고 난 후 감상을 써 봅시다.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휘 학습】

〔가〕

顔面 안면 • 初面 초면 • 前面 전면 • 正面 정면 •	• 처음으로 대하여 봄. • 앞으로 향한 방향. •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낼 만한 친분이나 교분. • 똑바로 마주 보이는 면.
--	--

〔나〕

先後 선후 • 黑白 흑백 • 長短 장단 • 深淺 심천 • 頭尾 두미 • 送迎 송영 • 乾坤 건곤 • 始終 시종 • 今昔 금석 • 彼此 피차 •	• 이쪽과 저쪽의 양쪽. • 옳고 그름. 또는 잘잘못. • 먼저와 나중. • 깊음과 얕음. • 가는 사람을 보내고 오는 사람을 맞이함. • 일이나 사물의 처음과 끝. • 지금과 옛날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처음과 끝. • 하늘과 땅. • 길고 짧음. 장점과 단점.
--	---

〔다〕

雨 비 • 風 바람 • 雲 구름 • 柳 버드나무 • 燈 등불 •	• 움직임, 이동성, 활력, 시련, 고난 등. • 쓸쓸함, 외로움, 그리움, 아픔, 슬픔 등. • 자비, 정성, 봉사, 희망, 생명 등. • 비밀, 걱정, 덧없음, 간신 등. • 여성다움, 섬세함 부드러움 등.
---	---

【꼭 알아 둥시다】

■ ‘生’과 ‘子’의 쓰임

- ‘生’의 쓰임
 - 살다: 生活(생활) 생명이 있는 동안 살아서 경험하고 활동함
 - 낳다: 出產(출산) 아기를 세상에 내놓음. 만들어 내거나 생겨남

- ‘子’의 쓰임

- 아들: 長子(장자) 맏아들
- 스승·공자의 호칭: 子曰(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 물건 따위의 이름 뒤에 쓰임: 冊子(책자), 卓子(탁자), 電子(전자)

■ 難兄難弟의 유래

후한 말 사람 진식(陳寔)은 태구(太丘) 현령이란 낮은 관직에 있었지만, 두 아들 진기(陳紀)·진심(陳諶)과 더불어 군자로 불릴 정도로 덕망이 있었다. 진기의 자는 원방(元方)이고, 진심의 자는 계방(季方)이다.

「진기의 아들 진군(陳群, 장문(長文))은 영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심의 아들 진충(陳忠, 효선(孝先))과 서로 자기 아버지의 공적과 덕행을 논하였는데 결말이 나지 않자 할아버지 진식에게 물었다. 그러자 진식이 말했다. “원방을 형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계방을 아우라고 하기도 어렵구나.”(陳元方子長文, 有英才, 與季方子孝先, 各論其父功德, 爭之不能決, 咨於太丘. 太丘曰, 元方難爲兄, 季方難爲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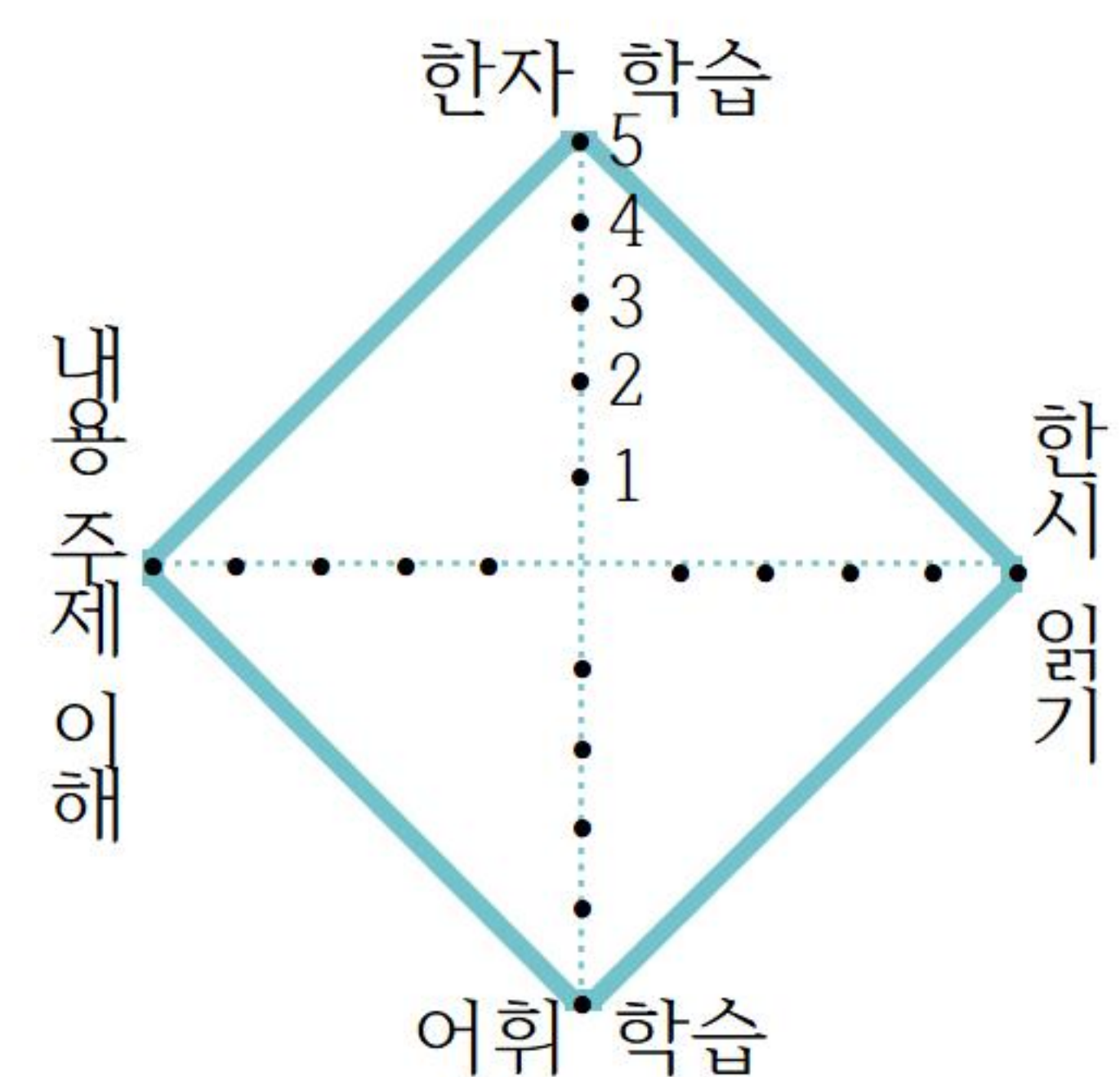
이 이야기는 《세설신어(世說新語) 〈덕행(德行)〉》에 나오는데, 진식이 한 말에서 ‘난형난제’가 유래했다. 비슷한 말로 ‘막상막하(莫上莫下)’가 있다. 원문의 태구(太丘)는 지명으로 지금의 하남(河南) 영성(永城)의 서북(西北)이다. 진식이 태구의 장을 지냈으므로, 그의 이름을 직접 쓰는 대신 그의 직함을 쓴 것이다.

難兄難弟를 nán xiōng nán dì로 발음할 경우에는 ‘고난이나 재난을 함께한 사람’, 혹은 ‘서로 같은 곤경에 처한 사람’이란 뜻으로 쓰인다.

■ 과일들의 의미

- 대추: 자식을 낳아 집안의 대를 이어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과실의 으뜸이라는 데서 왕을 의미하기도 한다.
- 배: 배의 수분은 건강과 풍요를 상징하며, 배꽃과 배속 부분의 흰색은 남자에게는 선비의 지조, 여자에게는 절개를 의미한다. 씨앗이 8개라는 데서 ‘팔도 관찰사’를 의미하기도 한다.
- 감: 고욤나무 줄기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감나무를 접목해야 비로소 감나무가 되듯이 인간도 배움이 있어야만 올바른 인간이 된다. 는 뜻에서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씨앗이 6개라는 데서 ‘육판서’를 의미하기도 한다.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13. 한강을 건너며

이름: ()학년 ()반 ()번

날짜: 년 월 일 ~ 월 일

【본문 학습】

문장	<div> <div>嶺¹</div> <div>外²</div> <div>音³</div> <div>書⁴</div> <div>絶⁵</div> </div> <div> <div>령</div> <div>외</div> <div>음</div> <div>서</div> <div>절</div> </div> <div>하고</div>	<div>嶺</div> <div>外</div> <div>音</div> <div>書</div> <div>絶</div> <div>고개</div> <div>바깥</div> <div>소리</div> <div>책, 글</div> <div>끊다</div>
풀이	<div> <div>• 音書: 소식이나 편지</div> <div>▶ 고개 밖 소식이 끊기고,(→ 고개 밖에 살아 (고향의) 소식을 알 수 없고,)</div> </div>	
문장	<div> <div>經</div> <div>年</div> <div>復</div> <div>歷</div> <div>春</div> </div> <div> <div>경</div> <div>년</div> <div>부</div> <div>력</div> <div>춘</div> </div> <div>이라.</div>	<div>經</div> <div>年</div> <div>復</div> <div>歷</div> <div>春</div> <div>지나다</div> <div>해</div> <div>다시</div> <div>지내다</div> <div>봄</div>
풀이	<div> <div>• 經年: 여러 해를 보냄</div> <div>• 復: (복) 회복하다, (부) 다시</div> <div>▶</div> </div>	
문장	<div> <div>近</div> <div>鄉</div> <div>情</div> <div>更</div> <div>怯</div> </div> <div> <div>근</div> <div>향</div> <div>정</div> <div>갱</div> <div>겁</div> </div> <div>하여</div>	<div>近</div> <div>鄉</div> <div>情</div> <div>更</div> <div>怯</div> <div>가깝다</div> <div>시골</div> <div>뜻</div> <div>더욱</div> <div>겁내다</div>
풀이	<div> <div>• 更: (갱) 다시, 더욱 (경) 고치다</div> <div>• 怯: 겁내다, 무서워하다</div> <div>▶</div> </div>	

중_위크북_V. 옛 노래의 정취

* 해당 파일의 저작권은 (주)이젠미디어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5

문장	不 敢 問 來 人 이라. 불 감 문 래 인	不 아니다 敢 감히 問 묻다 來 오다 人 사람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不敢: 감히 ~못하다• 來人: 오는 사람, 고향 쪽에서 오는 사람 <p>▶</p>	

※ ‘고향’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 한시를 읽고 난 후 감상을 써 봅시다.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휘 학습】

〔가〕

內外 내외 • 去來 거래 • 強弱 강약 • 進退 진퇴 • 勝敗 승패 • 陰陽 음양 • 開閉 개폐 •	• 문 따위를 열고 닫음. • 우주 만물을 만들어 내는 상반된 성질의 두 가지 기운으로서의 음과 양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안과 밖을 아울러 이르는 말. • 강하고 약함. • 상품이나 용역을 사고팔거나 서로 돈을 융통함. • 승리와 패배를 아울러 이르는 말. • 나아가고 물러남을 아울러 이르는 말.
---	--

〔나〕

遠景 원경 • 近景 근경 • 冷房 냉방 • 暖房 난방 • 定着 정착 • 流浪 유랑 • 集合 집합 • 解散 해산 • 增加 증가 • 減少 감소 •	• 양이나 수가 이전보다 줄어듦 • 모였던 사람들이 따로따로 흩어짐. • 양이나 수가 이전보다 더 늘어나거나 많아짐. • 먼 곳의 경치. • 더위를 막기 위해 실내의 온도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일 • 가까운 곳의 경치 • 추위를 막기 위해 실내의 온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일. •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님. • 여럿이 한 곳에 모여 일정한 무리를 이룸. • 사람이 한곳에 자리를 정해서 머물러 삶.
--	---

〔다〕

望雲之情 망운지정 • 家書萬金 가서만금 •	• 타국이나 타향에 살 때는 고향옛 온 가족의 편지가 더없이 반갑고, 그 소식의 값이 황금 만 냥보다 더 소중함. • 구름을 바라보며 그리워한다는 뜻으로, 타향에서 고향에 계신 부모를 생각함.
----------------------------	--

【꼭 알아 둬시다】

■ 한자의 쓰임

- ‘復’의 쓰임
 - (복)회복하다: 回復(회복)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 (부)다시: 復活(부활) 다시 살아남

- ‘更’ 쓰임
 - (갱) 다시, 더욱: 更生(갱생) 다시 살아남
 - (경) 고치다: 變更(변경) 바꾸어 고침
- 不敢(불감): -감히 ~하지 못하다.
 - 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毀傷孝之始也(신체발부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 : 신체와 터력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얻은 것이다. 감히 헐거나 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 작품의 이해와 감상

- 歸去來辭(귀거래사): 시인 도연명이 벼슬살이가 번거롭고 누이동생의 상(喪)을 당하게 되자,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전원 속에서 사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자신을 자연의 순리에 맡긴다는 인생관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노장 사상을, 전원에서의 바른 삶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유교적인 정신을 바탕에 두고 있는 전원시이다.
- 鄉愁(향수): 정지용이 가난하지만 평화로웠던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며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각 연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묘사한 고향의 정경을 유기적 관련성 없이 병렬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후렴구는 회상 속에 떠오른 고향의 정경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家書萬金(가서만금) 유래

두보가 안록산(安祿山)의 난이 일어나 장안(長安)이 함락되고 반란군에게 잡혀 포로가 되었을 때 지은 ‘춘망(春望)’이라는 시(詩)에서 유래하였다.

國破山河在(국파산하재) : 나라는 망했지만 산하는 여전하고,

春城草木深(춘성초목심) : 봄이 찾아오니 도성에는 초목이 무성하다.

感時和賤淚(감시화천루) : 시절을 생각하면 꽃을 봐도 눈물을 흘리고,

恨別鳥驚心(한별조경심) : 이별을 한스러워하며 새 소리에도 놀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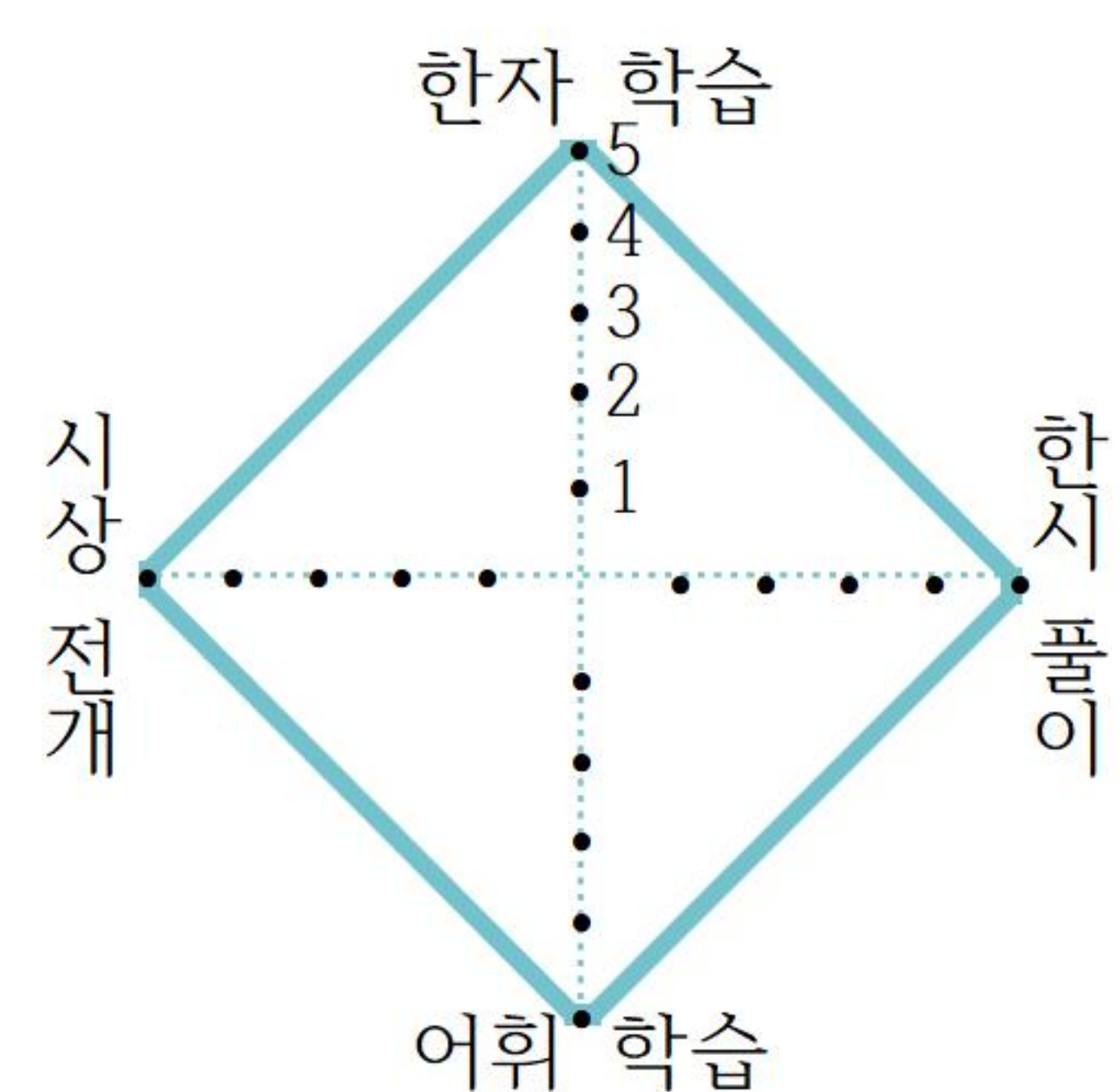
烽火連三月(봉화연삼월) : 봉화에 밝힌 불은 3개월 동안 계속 피어오르고,

家書抵萬金(가서저만금) : 집에서 온 편지는 만금처럼 소중하구나,

白頭搔更短(백두소경단) : 대머리 긁어서 더욱 빠지고,

渾欲不勝簪(혼욕불승잠) : 상투를 하고자 하나 비녀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 “전당시”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14. 입을 보내며

이름: ()학년 ()반 ()번

날짜: 년 월 일 ~ 월 일

【본문 학습】

문장	雨 ¹ 우	歇 ² 헐	長 ³ 장	堤 ⁴ 제	草 ⁵ 초	色 ⁶ 색	多 ⁷ 다 ^{한데,}	雨 歇 長 堤 草 色 多	비 그치다 길다 둑 풀 빛 많다
풀이	• 歇: 그치다 • 長堤: 긴 둑 • 多: 많다 → 질다. ▶ 비가 그친 긴 둑에 풀빛이 많은데 → 비 갠 긴 둑에 풀빛이 짙은데								
문장	送 ¹ 송	君 ² 군	南 ³ 남	浦 ⁴ 포	動 ⁵ 동	悲 ⁶ 비	歌 ⁷ 가 ^{라.}	送 君 南 浦 動 悲 歌	보내다 그대 남녘 물가 울리다 슬프다 노래
풀이	• 君: 임금, <u>그대</u> • 南浦: 남쪽 포구. 대동강 하류의 진남포(鎭•南 浦平) • 動: 움직이다, <u>울리다</u> ▶								
문장	大 ¹ 대	同 ² 동	江 ³ 강	水 ⁴ 수	何 ⁵ 하	時 ⁶ 시	盡 ⁷ 진 ^{고,}	大 同 江 水 何 時 盡	크다 같다 강 물 어느 때 마르다
풀이	• 大同江 : 평안남도에 있는 강으로 예로부터 문학적 소재로 많이 이용되었음 • 何: 어찌, <u>어느</u> • 盡: 다하다, 마르다 ▶								

문장	別 淚 年 年 添 綠 波 라. 별 루 년 년 첨 록 파	別 이별 淚 눈물 年 해 年 해 添 더하다 綠 푸르다 波 물결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別淚: 이별의 눈물• 年年: 해마다 <p>▶</p>	

※ 누군가 애타게 그리워하면서도 이별해야 하는 슬픔과 아쉬움을 이해하도록 한다.

※ 한시를 읽고 난 후 감상을 써 봅시다.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휘 학습】

〔가〕

渴求 갈구 •		• 비가 내려 가뭄을 겨우 벗어남.
解渴 해갈 •		• 몹시 애타게 바라고 구함.
入浴 입욕 •		•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방.
浴室 욕실 •		• 맑고 깨끗함.
淨潔 정결 •		• 목욕탕에 들어감. 또는 목욕을 함.
純潔 순결 •		• 잡된 것이 섞이지 않고 깨끗함.
風浪 풍랑 •		• 바람과 물결을 아울러 이르는 말.
放浪 방랑 •		• 정한 곳이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님.
清明 청명 •		• 이십사절기의 하나. 춘분(春分)과 곡우(穀雨)사이이며, 4월 5일 무렵이다.
淸酒 청주 •		• 다 익은 술에 용수를 박고 떠낸 술.
感泣 감읍 •		• 감격하여 눈물을 흘림.

〔나〕

書冊 서책 •		• 모사(模寫)나 복제(複製) 따위를 할 때 바탕이 되는 그림.
古書 고서 •		• 제 몸의 피를 내어 쓴 글씨.
證書 증서 •		• 어떤 생각이나 사실을 글이나 그림, 사진 따위로 나타낸 종이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꿰어 표지를 붙인 물건.
血書 혈서 •		• 아주 오래 전에 간행된 책.
脫盡 탈진 •		• 있는 힘을 다함.
盡力 진력 •		• 그림 그리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
畫家 화가 •		• 기름으로 갠 물감을 사용하여 그리는 서양화의 한 기법.
油畫 유화 •		• 몸의 기운이 다 빠져 없어짐.
原畫 원화 •		• 어떤 사실이나 권리, 의무 관계를 증명한 문서

〔다〕

海 해 •		• 호수
湖 호 •		• 강
河 하 •		• 샘
泉 천 •		• 바다

【꼭 알아 둥시다】

■ 한자의 쓰임

- 헐(歇)의 쓰임
 - 쉬다: 間歇(간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일어났다 쉬었다 함.
 - 그치다: 憂未歇也(우미혈야) 걱정이 아직 그치지 않음.

- 2인칭 대명사: 子(자), 女・汝(여)
 - 子將何之(자장하지) 당신은 장차 어디로 가시렵니까?
 - 爾汝[이여]너니 나니 하면서 서로 허물 없이 트고 지내는 사이

■ 나루(浦, 津, 渡, 港)의 의미 구분

- 의미: 강이나 내 또는 좁은 바닷목에서 배가 건너다니는 곳
- 문학적 의미: 육지와 물이 문화가 서로 교류하는 곳으로 서로 다른 것들의 만남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한 ‘떠남, 헤어짐, 기다림, 만남, 슬픔, 쓸쓸함, 새로움’ 등의 의미가 있다.

■ 정지상과 김부식의 대결

이규보의 《백운소설(白雲小設)》에 文才의 라이벌 김부식과 정지상의 이야기가 전한다. 정지상의 시 중에 琳宮梵語罷(임궁범어파) 절에서 독경 소리 끝나자마자 天色浮琉璃(천색정유리) 하늘빛이 유리처럼 깨끗해졌네.

라는 구절이 있었다. 이것이 마음에 든 김부식이 이 구절을 자기에게 달라 하였는데 정지상이 거절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가 평소에 정지상의 빼어난 문장력에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김부식이 묘청의 난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씌워서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다. 《백운소설》이 전하는 두 사람의 경쟁관계는 정지상의 사후(死後)까지 이어진다. 어느 봄날, 김부식이 흥취가 돌아,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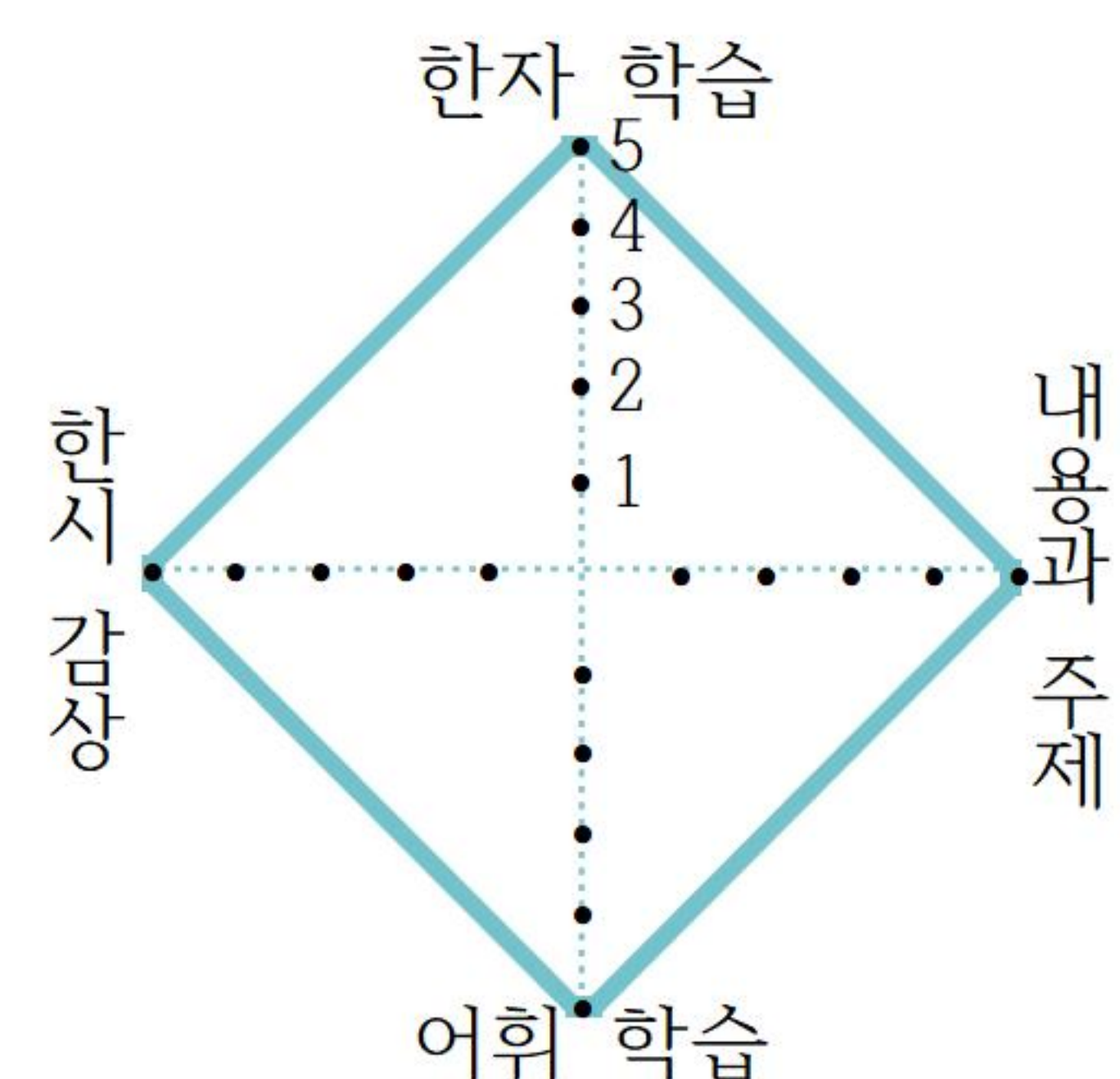
柳色千絲綠 (류색천사록) 버들 빛은 천 가닥 푸르고
桃花萬點紅 (도화만점홍) 복사꽃은 만 점이 붉구나.

그러자 공중에서 정지상 귀신이 나타나, 김부식의 뺨을 찰싹 때리고 “일천 가닥이니, 일만 점이니, 바보 같은 소리 말라. 버들가지가 천 개인지 세어보았으며, 복사꽃이 만 개인지 헤아려 보았느냐?” 면서 다음과 같이 고쳐 주었다고 한다.

柳色絲絲綠 (류색사사록) 버들 빛은 실실이 푸르고
桃花點點紅 (도화점점홍) 복사꽃은 점점이 붉구나.

이에 김부식은 정지상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다고 한다. - 정민, “한시 이야기”, 보림, 2003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15. 더위를 피해서

이름: _____ ()학년 ()반 ()번

날짜: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 _____ 월 _____ 일

【본문 학습】

문장	赤 ¹ 日 ² 中 ³ 天 ⁴ 鳥 ⁵ 不 ⁷ 鳴 ⁶ 한데,	赤 불다 日 해 中 가운데 天 하늘 鳥 새 不 아니다 鳴 울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赤日: 붉은 해, 이글거리는 해 • 中天: 하늘 한가운데, 한낮, 대낮 ▶ 붉은 해 중천이라 새가 울지 않고 → 붉은 해 떠 있는 한낮이라 새조차 울지 않고 	
문장	山 人 騎 馬 作 閒 行이라.	山 산 人 사람 騎 말을 타다 馬 말 作 하다 閒 한가하다 行 다니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山人: ① 세상을 멀리 하고 깊은 산 속에 사는 사람. ② 산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승려나 도사(道士)를 이르는 말 • 作: 짓다, <u>하다</u> ▶ 	
문장	脩 然 去 入 連 山 路하니,	脩 홀가분하다 然 그러하다 去 가다 入 들다 連 잇다 山 산 路 길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脩然: 홀가분한 모양 • 去入: 들어가다, 접어들다 • 山路: 산에 나 있는 길 ▶ 	

문장	喜 _희 得 _득 松 _송 風 _풍 澗 _간 水 _수 聲 _성 이라.	喜 기쁘다 得 얻다 松 소나무 風 바람 澗 계곡의 시내 水 물 聲 소리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得: 얻다. 여기서는 소리를 얻는 것이므로 ‘듣다’의 의미• 松風: 솔바람• 澗: 계곡의 시내 <p>▶</p>	

※ 더위를 피하는 선인들의 여유와 지혜를 알도록 한다.

※ 한시를 읽고 난 후 감상을 써 봅시다.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휘 학습】

〔가〕

菜松花 채송화 • 紅松 홍송 • 植栽 식재 • 植樹 식수 • 取材 취재 • 製材 제재 • 政權 정권 • 基本權 기본권 • 假橋 가교 • 陸橋 육교 • 竹枝 죽지 • 連理枝 연리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나무의 한 종류.• 초목을 심어 재배함.• 쇠비름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풀.• 나무를 심음. 또는 심은 나무.• 문학 작품이나 기사 따위를 쓰는 데 필요한 자료나 재료를 찾아내서 수집하거나 조사하여 얻음.• 베어 낸 나무로 가구의 재료가 되도록 가공함.• 임시로 만들어 놓은 다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 권리.• 도로나 철로 위에 놓아 건널 수 있게 만든 다리.• 대나무의 가지.• 두 나무의 가지가 서로 맞닿아서 곁이 통한 것.• 정부를 구성하여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권력.
--	--	---

〔나〕

②

伏

墨

威

赤

號

⑧

後

中

的

不

電

分

天 천 하늘
信 신 믿다
線 선 줄
充 충 채우다

- ① 지위나 신분에 따른 위엄과 신망.(위신)
- ② 소설이나 희곡 등에서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하여 그에 관련된 일을 미리 던지시 비쳐 보이는 일(복선)
- ③ 목수가 나무를 다룰 때 쓰는 먹통의 줄. 또는 먹으로 그은 선(복선)
- ④ 어떤 일이나 몸 따위의 상태가 위험함을 알리는 징후나 조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적신호)
- ⑤ 하늘의 한복판.(중천)
- ⑥ 필요한 수준이나 분량에 비치지 못하여 모자람.(불충분)
- ⑦ 축전지(蓄電池)나 축전기(蓄電器)에 전류를 흘려서 본래의 전압으로 회복시킴. 또는 휴식을 하면서 활력을 되찾거나 실력을 기르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충전)
- ⑧ 사람의 성품이나 능력 따위가 태어난 이후에 얻어진 것.(후천적)

〔다〕

百花滿發 백화만발 • 嚴冬雪寒 엄동설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눈 내리는 한겨울의 심한 추위• 온갖 꽃이 활짝 피어 아름답게 흐드러진 상태를 이르는 말
----------------------------	--	--

【꼭 알아 둬시다】

■ 한자의 쓰임

- ‘日’의 쓰임: 해, 날
 - 해: 赤日(적일) 빛이 강한 태양
日出(일출) 해가 뜸
 - 날: 連日(연일) 여러 날을 계속함
擇日(택일)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길흉을 가리어 좋은 날을 정하는 일
- 中天: 하늘의 한복판. 한낮, 대낮
 - 활용: 그때는 해가 中天을 넘어선 지 얼마 안되는 오후였다.
 - 원어: 中天竺(중천축)
 - 유의어: 半宵(반소), 半天(반천), 中空(중공), 中霄(중소)

■ 조상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한 도구

- 돛자리(화문석): 왕골이나 골풀의 줄기를 잘게 쪼개서 친 자리로 꽃무늬 등을 놓아 짠 돛자리로 공기가 잘 통하여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
- 모시: 모시풀의 줄기껍질로 만든 실로 짠 피륙인 식물성 천연 섬유로 바람이 잘 통하여 땀이 나도 몸에 달라붙지 않는다.
- 삼베: 삼으로 짠 천으로 베·대마포 라고도 한다. 삼 껍질의 안쪽에 있는 인피섬유(靱皮纖維)를 이용하여 짜는데, 수분을 빨리 흡수·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다.
- 죽부인: 대나무를 쪼개어 매끈하게 다듬어 열기설기 엮어서 만든 것이다. 사용하는 사람의 키 만큼 길고 누워서 안고 자기에 알맞은 정도의 원통형 대나무이다. 속이 비어 있고 구멍이 뚫려 있어서 공기가 잘 통한다. 대나무의 표면에서 느끼는 차가운 감촉 등을 이용하여 만든 것인데, 여름에 홑이불 속에 넣고 자면 더위를 한결 덜 수 있었다
- 부채: 손에 쥐고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켜 더위를 덜거나 불을 일으키는 데 쓰는 물건으로 가는 대오리로 살을 만들고 종이 또는 형겔으로 발라 만들고 장식이나 그림을 그린다.
- 토시: 팔에 끼는 것으로 땀이 옷에 배지 않고, 옷 사이로 바람이 잘 통하게 하여 시원하게 해준다.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